

公務國外研修結果報告書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5. 6. 17 ~ 6. 25 (7박9일)
- 방 문 국 : 터키
- 연 수 단 : 15명(의원10명, 공무원5명)

龜尾市議會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 (터키)



터키 연수단 일행

☞ 이 연수결과 보고서는 2005년 터키 연수단 전체의원이
공동 작성 하였습니다.

目 次

I . 연수개요	1
1. 방문국	1
2. 연수목적	1
3. 연수기간	1
4. 연수보고서 작성자	1
5.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2
II .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3
1. 터키현황	3
1) 터키의 역사 개관	3
2) 터키의 지리개요	10
3) 터키족 이야기	13
2. 주요 방문지 현황	18
1) 형제의 나라 터키로	18
2) 갑파도키아의 투파	20
3) 지중해의 휴양도시 안탈리아	27
4) 다시 가고 싶은 이스탄불	30
III . 연수결과	44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 터 키

2. 연수목적

- 본격적인 지방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 최근 해외연수 대상지로 많은 인기가 있는 터키의 전반적인 사향을 직접 체험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분석하고 정치·경제·문화·관광 등 향후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05. 6. 17 ~ 6. 25 (7박9일)

4. 연수보고서 작성자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연번	소속위원회	성 명
1	의회운영위원회	임성수위원장	9	산업건설위원회	백옥배의원
2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위원장	10	"	정재화의의원
3	"	조용호의원	11	사무국장	최화영
4	"	전인철의원	12	전문위원	이춘배
5	"	윤종석의원	13	행정7급	이영길
6	"	박배원의의원	14	행정7급	장인수
7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위원장	15	기능직	문수진
8	"	이강덕의원	16		

5.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출 발 지	도 착 지	방문지	주요내용	비 고
제 1 일 6. 17(금)	구 미 인 천	이스탄불		• 구미출발(10:30) • 인천출발(16:40) • 이스탄불 도착(21:40)	
제 2 일 6. 18(토)	이스탄불	갑바도기아 꼬냐	기관방문 (nevsehir 시청방문) 데린구유 지하도시	•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 도시개발 실태	
제 3 일 6. 19(일)	꼬냐	안탈라	기관방문 (카리알리오올루공원) 안탈라 시가지	• 관광 편의시설 관리상태 • 문화유적지 보존실태 • 도로교통관리 실태	
제 4 일 6. 20(월)	안탈리아	파묵갈레	기관방문 (파묵갈레 외국공원) 히에라폴리스 유적지	• 파묵갈레 외국공원 견학 • 문화유적지 관리실태	
제 5 일 6. 21(화)	파묵갈레	에베소 아이발릭	기관방문 (셀수스도서관) 부조 하드리아누스신전	• 공공시설 관리실태 • 관광편의시설 관리실태 • 도시공원 조성실태	
제 6 일 6. 22(수)	아이발릭	트루바 이스탄불	앗소 항구 트로이목마, 고대유적지 selguk 시청방문	• 도로교통 관리실태 • 문화유적지 보존실태	
제 7 일 6. 23(목)		체재	이스탄불 지하물저장고 기관방문 (이스탄불 시청사 방문)	• 편의시설 관리실태 •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 • 도로주차장 관리실태	
제 8 일 6. 24(금)		체재	톱가프 궁전 방문 히포드럼 그랜드바자르 시장	• 문화재 관리실태 견학 • 도시공원 개발실태 • 농축산물 유통실태	
제 9 일 6. 25(토)	이스탄불	인 천 구 미		• 인천공항도착(15:20) • 구미도착(20:00)	

이라는 과제를 뒤에 들어오는 종족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터키인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 터키 공화국의 영토로 확정된 아나톨리아 반도의 역사도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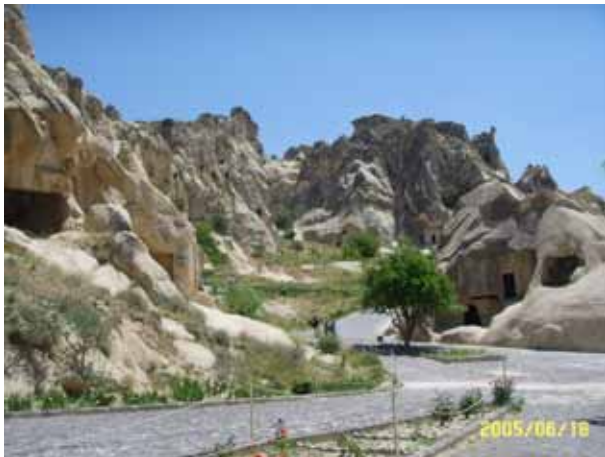
- 한 곳에서 대대로 눌러 앉아서 비교적 단순한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생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사 이야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한없이 긴 이야기를 다루는 문제이다. 그 만큼 이 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대하고 장구하다. 먼저 여기서 다루는 역사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임을 미리 밝혀두며, 무엇보다 먼저 터키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땅, 아나톨리아 반도의 역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터키의 기원>>

- 터키는 기원전 2000년에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기원하였으며 터키민족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혹은 돌궐족)으로 기원전 220년에 수립된 테오만 야브구(Teomman Yabgu)왕국을 중국 사람들은 “흉노”라고 불렀음. 터키 민족은 중앙아시아 동남부에서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서기 10세기 내지 11세기부터 아나톨리아(소아시아)반도에 정착함.
- 터키 민족은 중세기에 아랍지역으로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였음. 그러나 조상 전래의 자연숭배 사상과 풍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적지 않음.
- 터키어는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에 속하여 문장구조, 순서, 모음조화, 어미활용 등에 있어서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음.

<<고 근대국가 시대>>

- 터키 국토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연계하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왔음.
 - BC 2000년 - 1500년 : 청동기 시대로 도시국가 생성, 발전
 - BC 1500년 - 1200년 : 히타이트 시대
 - BC 1200년 - BC 220년 ; 동부 우라루트 왕조, 서부 프리기아 왕조가 융합하였으며 중부에는 히타이트 도시국가가 잔존
- 기록에 의하면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역사적으로 약30개의 민족이 거주한 바 있고 그중 약15개 민족이 문화유적과 유물을 남기고 있음. 오늘날 아나톨리아 반도를 포함한 터키 영토 도처에서 이러한 유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스탄불, 앙카라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고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 산재하고 있음.



<괴뢰메 박물관 >



<셀수스 도서관 >

- 터키인들의 조상인 흉노제국의 멸망 이후 6세기경 중국변경에서 세워진 돌궐제국도 터키인의 조상으로 확인됨. 돌궐제국은 흉노제국에 이어 중국변경 스텝지역을 통일한 터키계 대제국임. 돌궐제국은 그들의 근거지인 오르혼강 지역에서 719-735년 사이에 돌궐 비문을 남겼음.
- 터키인 조상들은 흉노제국, 돌궐제국에 이어 위구르제국, 셀주크제국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국의 역사를 기록하였음.

<<오스만제국 시대(1299-1922)>>

- 오스만제국은 1354년 유럽에 진출, 정복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453. 5. 29 메흐멧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함으로써 오스만제국의 팽창정책은 그 절정에 도달하였음. 16세기에는 에게해와 흑해가 오스만제국의 내해로, 이디오피아, 중앙아프리카, 예멘, 크림리아를 국경으로 삼았으며 비엔나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었음.
- 오스만제국은 17세기부터 쇠퇴되기 시작하여 1912-1913 발칸전쟁으로 불가리아의 마리차강까지 후진, 축소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시 패전국인 독일측에 가담, 전후 연합국과의 세브르(Svre)강화조약 체결(1920.8)로 콘스탄티노플의 배후지와 터키의 발생지인 아나톨리아 고원만을 보유하게 되었음.
- 사후 터키의 국부(Atat rk, 아타튀르크,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로 추대된 무스타파 케말파샤(Mustafa Kemal Pasha)는 세브르조약을 무효화하고 실지회복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동 조약은 비준되지 않았으며



<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 동상 >

1923.7 연합국과 로잔(Lausanne)조약을 체결하여 세브르조약으로 상실하게 된 아나톨리아 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회복하게 되었음.

<<공화국 시대(1923-현재)>>

◇ 터키공화국 수립과 케말파샤의 개혁정치 실시 (1923.10-1938. 11)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발된 오스만제국의 분열로 인해 터키의 정치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파샤가 이끄는 민족독립운동에 귀속하게 되었음. 케말파샤는 1920.4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22년동안 그리스와 해방전쟁으로 그리스군을 이즈밀과 트레이스반도에서 축출한 후 1922. 11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10월29일터키공화국을 선포하였음.
- 케말파샤는 공화국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어(총리에는 이스멧 이뇌뉴가 임명됨)해방전쟁에 참가한 2개의 항쟁조직을 결합하여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의 회교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함.
 - 국가의 세속화, 즉 종교에서 탈피한 공화제실시, 이슬람식 재판 및 종교교육 폐지, 정종 분리, 여성해방, 일부다처제 금지와 서양력 채택, 라틴 철자법 도입, 산업개발 등 서구제도 도입

◇ 케말파샤의 사후와 군사쿠데타(1938.11~1960.5)

- 1938. 11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사망하고 이스멧 이뇌뉴가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세속주의를 근간으로 한 서구화 정책을 지속함.
-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터키는 중립을 지키다가 1945년 2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여 연합군에 가담하며 전후 소련의 세력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여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하고 1952년 나토에 가입함.

- 국내적으로 194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65석을 얻게 되어 공화국 수립 이후 지속되던 공화인민당의 일당체제가 종식되며 195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으로 집권함.
- **위치와 면적** : 북위 35-42, 동경 25-45로 아시아대륙의 서부에 위치, 유럽대륙의 동남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흑해, 말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즈 해협에 의하여 트레이스 반도(유럽 부분)와 아나톨리아 반도(아시아 부분)로 구분되며, 북쪽은 흑해, 동쪽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남쪽은 이라크, 시리아 및 지중해, 서쪽 유럽 부분 영토는 그리스 및 불가리아와 접경되어 있으며, 면적은 전체 779,452km² (한반도의 3.5배)
 - 아나톨리아(Anatolia, 아시아) : 755,688km²(97%)
 - 트레이스(Trace, 유럽) : 23,764km²(3%)
- **민족구성과 인구** : 터키족(90%), 쿠르드족(약 1,000만명으로 추정), 아랍인 36만, 아르메니아인 5만, 기타 그리스인, 유대인 등으로 전체 인구가 약 68,00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령이 상당히 젊어서 전체 인구의 40%가 15세이하이고, 전체인구의 72%가 35세 이하이다. 출생률 2.8%, 사망률 0.8%, 인구 증가률 2.3%, 평균수명은 67세쯤이며, 요즘 들어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도 농촌 인구가 많은 편이다.
- **법** : 다른 국가들처럼 태양의 신 아린나가 법의 신이었다. 아시리아나 함무라비에 비해 더욱 인도적이고 온건한 법을 갖고 있었다. 결혼을 보면 약혼제도가 있었다. 자유민 남자는 신부측에 쿠샤타라 불리는 돈을 바쳐야했고 바치지 않을 경우에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다. 신부는 시집갈 때 혼수품을 가지고 가야했다. 근친결혼은 죄에 해당됐다. 히타이트의 법률은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쪽에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있다.

- **정치** : 의원 내각제이고 내각의 수반은 수상이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수상은 직선제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는 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는 당이 없을 때는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
- **경제** : 히타이트의 경제는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했다.
- **언어** : 터키어를 사용한다. 전세계 터키어 사용권의 인구는 약 1억2천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터키어는 한국어와 같이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다. 그 외에 크루드인의 크루드어가 많이 사용된다. 문자는 라틴알파벳을 차용한 29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 **의무교육** : 중등과정(8년)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다. 사회보장제도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은퇴후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 실시되고 있다.



< 마을마다 있는 회교사원 >

- **종교** : 전체인구의 99%가 이슬람이다. 그러나 여타 이슬람국가와는 다르게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소수로는 아르메니아정교(아르메니아인) 약 55,000명이 살고 있으며, 유대인(유대교)이 약 26,000명이 살고 있다. 유대인이 유럽에서 박해 받을 때, 술탄 바예ジット 2세때(1492년) 많은 유대인을 유럽에서 데려왔다. 대부분이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이스라엘로 갔다. 지금도 터키의 가장 가까운 우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그리스 정교도(그리스인)는 약 25,000명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회교를 믿는 쿠르드인, 아랍인, 그르지아인, 알바니아인, 보스니아인 등 많은 인종이 살고 있다. 극소수나마 흑인도 살고 있다.
- **군대** : 나토의 회원 국가이며, 성인 남자는 다 군대에 가는(18개월)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대는 70만이 넘는 대군이며, 나토에서도 주력 부대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군사기지는 아다나에 있는 인질릭 공군기지이다. 6.25 동란 때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약 800명의 전사자를 냈다.

2) 터키의 지리 개요

터키의 지형은 대개 7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흑해지역

흑해는 북부 지방의 산악지대이다. 이 지역은 터키 면적의 1/6을 차지한다. 터키 최대의 산림 지대이고 강과 계곡이 많다. 또한 세계 최대의 헤이즐리넛 산지이다. 또한 흑해산 홍차가 유명하다. 유럽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말마라지역

말마라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다. 동남부 아나톨리아 지역 다음으로 작은 지역,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다. 쌀, 담배, 해바라기, 옥수수, 올리브, 실크의 산지이다.

에게지역

에게해안에 위치한 터키의 서부 지역의 저지대로 농업이 발달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산림도 많고, 인구밀도가 높다. 담배, 목화, 올리브가 많이 나고 대표적인 도시는 이즈밀이다. 이즈밀은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다.

지중해지역

터키 남부의 지중해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터키의 최대 산맥 토로스가 가로 막혀있다. 비옥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가 잘 자란다. 역시 에게해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 편이다. 에게해와 더불어 터키 최대의 관광지역이고 대표적인 도시는 안탈리아이다.



< 안탈리아의 해안 >



< 지중해의 유람선 >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

아나톨리아의 중부지역이다. 해발 고도는 600-1,200m사이이다. 주로 초원 지대이다. 밀농사를 많이 짓고, 양과 염소가 많은 목축지역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도시는 앙카라와 콘야이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터키의 동부 지역으로 산악지대에 속한다. 평균고도가 1500-2000m이다. 겨울이 길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되는 반면 목축이 성하다. 인구 밀도가 가

장 낮고, 소득수준도 가장 낮다. 터키에서 제일 높은 아라랏 산(5,156m)이 있다. 동남부 아나톨리아는 그 중에도 개발이 잘 안된 지역이다. 가장 큰 도시는 디야르바크르, 울파이다.

해안

3개의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데 북쪽으로 흑해(해안길이:1,595km) 서쪽으로 에게해(해안길이:2,800km), 남쪽으로 지중해 (해안길이:1,577km)와 말마라해(해안길이:1,000km) 또 다다넬즈 해협, 보스포러스해협이 있다. 에게해안이 가장 긴 이유는 해안에 굴곡이 심하기 때문이다. 소금의 농도는 흑해 1.7%, 말마라해2.2%, 지중해와 에게해가 3.8%이다. 터키에는 총159개의 섬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

호수

300개가 넘는 천연 호수, 130개가 넘는 농업용 호수가 있다. 호수의 총면적은 9,250km²이다. 제일 큰 호수는 반 호수로 넓이가 3,713km²이다. 댐으로는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아타튀르크댐이 제일 크다.

산

터키는 평균 해발 고도가 1,130m로 산악지대이다. 제일 높은 산은 아라랏 산(5,156m)이다.

강

강은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으나 꽤 긴편이다. 에게지역의 강들은 여름철엔 대개 바닥을 보인다. 제일 긴 강은 크즐 오르막(1,355km) 이다.

기후

지중해, 에게해, 말마라해 남쪽은 여름철엔 덥고, 건조하다. 겨울철엔 온화하고 비가 온다. 눈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말마라해 북쪽은 기타 해안 지대보다 온도가 낮다. 흑해지역의 겨울철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며, 연중 내내 비가 자주 오며 습도가 높은 편이다. 중부 아나톨리아는 일교차가 심하

다. 여름철엔 덥고, 건조하고, 겨울철엔 비나 눈이 많이 오는 편이다. 동부 아나톨리아도 일교차가 심하며,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에 춥고 눈이 많이 온다.

국경

유럽쪽으로는 북쪽으로부터 불가리아, 그리스, 아시아 쪽으로는 북쪽으로부터 그루지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3) 터키족 이야기(터키인의 역사)

- 터키인들은 자기들을 투르크라고 부른다. 우리들이 터키라고 부르는 대신에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투루키예”라고 부른다. 투루크란 말은 ‘강력한’, ‘힘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투르크인들이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도 학자들 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다. 몽골인종이라는 학자들과 유럽 백인인종이라는 학자들 아주 많이 엇갈리는 학설들이다. 그들은 처음에 ‘곡투르크’ 그러니까 하늘투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 그들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그들은 초기에는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민족이었다. 말을 잘 탔기 때문에 아주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었다. 중앙아시아에 살던 그들은 알타이에서 카자키스탄지역으로 그곳에서 남하해 지중해까지 이르렀다.
- 다른 투르크족들은 우랄산맥을 거쳐서 핀-오굴족과 만나게 된다. 또 다른 부족은 중국북서부에서 칸수지역으로 이동해 아시아 흉노국을 세운다. 다른 부족은 시베리아쪽으로 퍼져나간다. 또 인도의 인더스, 편잡지역을 공격한 부족도 있다
-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투르크족은 BC17C경에 국가를 세운 것으로 나

온다. 훈(흉노)라는 국가는 바로 투르크족이 세운 국가인 것이다. 중국에 세워진 만리장성도 바로 이 투르크족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다.

- 그렇게 강대했던 흉노도 BC36년 북, 남흉노로 갈라지면서 북흉노는 멸망하게 되고 남흉노는 중국의 속국이 된다. 멸망한 후의 흉노들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킨다. 그후 흉노족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드디어 유럽의 트라키아에 들어서게 된다. 그들은 유럽에 훈제국을 건설해 동로마와 서로마로부터 조공을 받아낸다. 유명한 왕은 아틸라였다. 유럽 훈제국은 아틸라 이후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이상이 고대 투르크인들의 역사인데 꽤나 복잡하다.

셀чук투르크

오우즈 부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우즈의 부족장 두칸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셀чук, 그리고 그 손자 투룰, 차으르가 그 뒤를 잇는다. 차으르의 지휘하에 1018년 아나톨리아에 진군해서 아르메니아를 물리치고 아니에까지 진출한다. 얼마후 카라한르까지 셀чук투르크에 패배한다. 1035년에는 가즈네리를 이겨서 호라산까지 진출한다. 그후 투룰은 스스로 술탄이 된다. 중요한 이란 도시중 하나인 이스파한을 얻고, 셀чук인들은 동부아나톨리아에서 계속적으로 비잔틴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다음에 바그닷드에 들어간 투룰은 칼리프로부터 지배자로 인정받는다. 투룰이 1063년에 죽자 투룰의 형제 차으르의 아들 알프 아슬란이 그 뒤를 잇는다. 아제르바이잔, 카프카시아까지 원정을 떠난 알프아슬란은 아르메니아의 수도 아니까지 포위한다. 그때 투르크멘 그룹이 영토내에 이주해오기 시작한다. 그들을 위해서도 아나톨리아에 진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비잔틴 제국도 내부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황제가 루마니아인 디오게네스와 결혼한다. 비잔틴의 새 황제는 계속해서 비잔틴을 괴롭히는 셀чук 투르크를 아나톨리아에서 몰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셀чук투르크를 공격한다. 1071년의 말라스기르트전투에서 비잔틴은 패배를 당하고 셀чук투르크의 아나톨리아 진출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 알프아슬란의 뒤를 이은 아들 메릭샤는 아버지의 훌륭한

재상 니자물 물큐와 손잡고 계속적인 정복사업을 벌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얻는다. 아나톨리아의 토착민들은 셀чук투르크인들의 발전을 그렇게 불편해 하지 않았는데 그이유는 비잔틴 제국의 높은 세금 때문이었다. 그 후 사판자에서 비잔틴제국은 다시 패배를 당하고 아나톨리아는 서서히 투르크화한다. 또한 슈레이만 샤에 의해서 안타키아(안디옥)까지 셀чук투르크의 영토가 된다. 메릭샤는 드디어 영토를 흑해까지 넓힌다. 그리하여 셀чук투르크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중국근방까지 서쪽으로는 이스탄불 근방까지 넓힌다. 메릭샤가 죽고나서 셀чук투르크에 왕권을 두고 혼란이 생긴다.

그리고 얼마후 십자군 원정이 벌어진다. 산잘이 1141년 카라하이트에 패하고 나서 셀чук투르크는 없어지나 아나톨리아의 셀чук투르크는 그 역사를 이어간다. 십자군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벌인 것은 바로 아나톨리아의 셀чук투르크이다. 셀чук투르크 말기에 역사에 등장한 몽골과의 쿵세산 전투에서 완패를 당하고 셀чук투르크는 일한의 점령하에 들어간다. 그 뒤 셀чук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다.

오스만투르크

오스만투르크는 셀чук시대에 세워져 셀чук투르크가 없어지자 독립을 선언한 부족국가 중의 하나이다. 셀чук투르크가 멸망하고 많은 이채민이 몰려왔고, 또한 많은 부족들이 경쟁하는 중부 아나톨리아로부터 떨어져 부르사, 이즈닉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제를 덜 받았고, 이미 비잔틴제국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다. 오스만은 1299년 국가를 세운다. 그리고 1324년 죽을 때까지 차근차근 영토를 확장해서 말마라해의 아나톨리아지역을 석권한다.

그 뒤를 이은 아들 오르한은 1326년 부르사를 점령하고 1335년 일한이 멸망하자 독립국의 제일인자가 된다. 오르한은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비잔틴제국으로 쳐들어가길 계속한다. 1354년 오르한의 아들 술레이만이 켈리볼루를 지나서 비잔틴제국의 유럽쪽 영토에 들어가기에 이른다. 이것은 오스만투르크가 유럽땅에 내딛은 첫발자국이다. 술레이만은 그후 앙카라를 점령하나, 사고로 죽게 되자 그의 형제 무랏이 계속적인 정복사업을 벌인다. 1362년 오르한이 죽었을 때 오스만투르크의 영토는 아나톨리

아의 북동부와 에게해의 일부, 트라키아의 일부였다.

1362년에 왕위에 오른 무랏1세는 발칸 반도쪽의 점령을 시도해서 에디르네(아드리아폴리스)를 점령한다. 그리고 수도를 에디르네로 옮긴다. 1389년 무랏1세는 코소바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해 예니체리를 구성하는데 예니체리는 기독교집안의 자제들로 구성된 술탄의 친위대였다. 1396년 전체 유럽이 참가했던 십자군을 니볼루 전투에서 물리치고, 연합유럽조차도 이제는 오스만투르크를 유럽에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더불어 비잔틴의 함락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전성기를 치달리던 오스만 투르크는 불의의 기습을 당하는데, 그것은 몽골족의 후예 티무르의 등장이었다. 티무르와의 전투에서 패한 오스만투르크는 재기불능의 상태로까지 빠졌다. 이것을 극복하는데 약 20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후 무랏2세때 힘을 다시 회복한다. 1422년 헝가리, 폴란드 왕은 성경에, 무랏2세는 코란에 맹세하며 협정을 맺고 무랏2세는 왕권을 아들 메흐멧 2세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 서명을 어기고 투르크의 영토로 쳐들어온다.

이에 메흐멧2세는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나, 무랏2세는 아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이 청을 거절한다. 그러자 메흐멧 2세는 아버지 무랏에게 "내가 왕이라면 와서 군대를 지휘하고,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의 나라를 구하소서" 라는 말을 한다. 이에 무랏2세는 달려와 적군을 물리친다. 아버지 무랏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메흐멧 2세는 콘스탄티노폴을 공격해 점령하는데 그때가 1453년이다. 학자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유럽의 중세가 막을 내렸다고 한다. 야우스 술탄 셀림은 카이로를 점령해 이집트의 맘루크왕조를 무너뜨리고 칼리프를 이스탄불로 데려와 칼리프직을 양도받아 오스만 투르크는 명실상부한 이슬람의 종주국이 된다. 카누니 술탄솔레이만은 오스만투르크를 최전성기로 이끄는 사람인데 그 당시의 영토는 북부 아프리카 전체, 동부 유럽 전체, 중동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로마 이후 최대의 영토를 지니게 된다.

그후로 점점 오스만 터키는 기울기 시작하고 점점 전쟁에서 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도 오스만투르크는 그 명을 이어간다. 이어간다고 표현했지만 역시 당시에는 최강 중의 하나였다.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편에 선 오스만 투르크는 전쟁에서 져서 패전국으로 전락하고, 그 많던 영토는 이미 다 상실하고 아나톨리아마저 점령된 상태가 돼버렸다. 이 와중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터키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다. '아타투르크'라는 이름은 터키인의 국부라는 말로 국회로부터 받은 칭호이다. 아타투르크에 의한 독립운동은 성공해서 1923년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고 왕정은 막을 내리게 된다.



< 대로변의 이스탄불 대학 >



< 피뢰메의 간이 우체국 >



< 켈리블루시청 방문 >



< 이스탄불의 소도로 우수로 >

2. 주요 방문지 현황

1) 형제의 나라 터키로

- 지구촌을 무대로 세계를 호흡하라는 해외 체험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그동안 많은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행운이라는 생각도 든다.
- 지중해와 흑해, 에게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다로서 매스컴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으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더구나 호국보훈의 달 6월에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 그 당시 참전한 16개국의 고마운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도움을 준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오스만제국의 영광을 가진 터키를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행운이었다.
- 11시간의 긴 비행시간으로 많이 피로함에도 한국보다 늦은 6시간의 시차 때문인지 별로 피로를 느끼지 못한 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 이스탄불에 도착하였다. 터키의 국기는 독립 당시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회교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곳곳의 국기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 평소에도 많은 곳에서 국기를 볼 수 있다는 터키국민들의 국기사랑에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외면하는 우리의 현실이 비교 되었다.
- 축구에 열광하고 피자의 원조이자 요구르트의 원산지인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는 영화 트로이로 잘 알려진 BC 1200년경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멸망한 트로이의 유적과 함께 문화유산을 많이 가진 나라이다. 기원전으로 거슬러 중국 변방의 돌궐족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점차 유럽쪽으로 이주하면서 혼혈을 만든 나라이기도 하다. 찬란한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비잔틴예술이 곧 동로마제국에서 기원을 만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오스만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터키족이 서부 아나톨리아에 건국한 이슬람왕조이다. 오스만이라는 한 이슬람 전사를 지도자로 하는 소집단에서 비롯되어 제1차 세계대전 후 지금의 터키까지는 약600년 이상 주변국가 대부분을 지배한 대제국이었다.

- 가는 곳마다 연필을 세운 듯한 화려한 첨탑이 있는 회교사원들이 절대적인 회교국가임을 상징하였고 아직도 우리말로 황제를 뜻하는 술탄을 찾기 쉬운 이유가 오스만터키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희망이 배여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 콘야의 시가지 >



< 보스포러스 해협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에 걸쳐있다 >

-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국가답게 광활한 대지와 끝없는 들판의 농작물이 우리를 부럽게 만들었고 우리보다 훨씬 낮은 국민소득, 약 4000불이면서도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제소득은 훨씬 높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유롭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터키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동유럽의 공산국가 주변에 위치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향하였고 주변의 회교국가인 이란, 이라

크와 국경 해 있으면서도 조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정치지도자들의 고뇌한 비전의 선택이 함께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터키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초대대통령, 그는 “터키인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며 오직 터키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을 남긴 애국주의자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시피 터키를 위해 산 그를 아직도 관공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건물에서 사진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터키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 대부분의 집들이 산이나 언덕위에 있는 이유가 강력한 S파 지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1999년 8월에 일어난 터키 이즈미트 지진 때 119구조대를 파견하여 구호 활동을 해준 한국의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약 500명의 한국 교민들의 숨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 장시간 버스를 타고 갑파도키아로 가면서 대단위 농장의 넉넉한 모습에서 작은 들판에서 땀 흘리는 우리의 농촌이 비교되어 많은 걱정이 앞섰다.

2) 갑파도키아의 투파

- 터키의 지도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나누는 것은 길고 좁은 바다 북해가 남쪽의 지중해로 흘러드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다. 이 해협이 도시 한 가운데를 가르는 이스탄불은 한강으로 강남·북이 나뉜 서울과 비슷하다.
- 여행 첫째날 현지가이드의 재촉으로 새벽 5시에 호텔에서 나와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을 향하였다. 아타튀르크는 제1차 세계대

전 종전후 갈기갈기 찢긴 터키의 땅과 민족의식을 규합해 자립의 초석을 놓은 초대 대통령(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 이름이다.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카이세리 국내선공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150여명 탑승할 수 있는 소형여객기로 이동하였다. 카이세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갑파도키아로 향했다.



< 갑파도키아 >



< 카이세리 국내공항 >

- 여행가이드의 안내에 터키를 단체 여행하려면 터키인과 함께 여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터키의 관광 정책상 터키인 관광가이드를 동반하여 관광명소를 찾아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책상 자국인 고용창출 차원과 관광지의 유물들을 짓궂은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 터키인 관광 가이드는 터키에서 최고의 직업이라 하며, 수입 즉 월급도 최고라 볼수 있다고 하며, 자격은 수개의 외국어 어학능력과 터키의 역사 등이라 하며, 학력도 대졸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대졸 학력은 전국민의 3%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수준의 국가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 카이세리에서 갑파도키아로 가는 길은 꼬박 4시간이 걸렸다. 넓은 들판에 기름진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놀리는 대지가 많음에 한편으로 부러웠지만 들판 위에 일하는 농부는 하나같이 여자들이었고 간혹 농기계 운전할 때 남자가 한두 사람 보이는 이유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 힘든 일은 모두 여자 몫이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찻집에 앉아 물 담배와 OK마작이라는 놀이로 소일한다고 하니 남자들의 지상낙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어처구니가 없어 보는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하였다. 뜨거운 햇빛 속에 여성들이 차도르를 둘러쓰거나 또는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이유는 국민 95%이상이 알라를 믿는 회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천에 깔린 올리버 나무를 보면서 갑파도키아에 도착했을 때는 영화에서 본 혹성탈출의 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사람들은 터키하면 이스탄불을 떠올린다. 그러나 터키의 중심은 지도상 “갑파도키아”라는 곳이다. 1000만 년 전 세 개의 화산이 폭발해 그 화산재로 응회암지대의 거대한 고원(평균고도 1000m)이 형성 됐는데 지구상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버섯모양의 “투파”가 여기에 있다. 영화 스타워즈Ⅱ를 보면 이 투파 지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모하비 사막에 있는 데스밸리의 황무지사막처럼 이곳 역시 외계를 닮은 곳을 찾기 위해 혈안이었던 스타워즈 촬영 팀에 포착 되었다고 한다.



< 갑파도키아의 투파 >



< 비둘기 계곡 >

- 다양한 기후대가 있지만 그래도 3000m급 고산지대 외에는 대체로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기상이변으로 갑

파도키아가 있는 중부 아나톨리아 지방의 해발 1000m 고원에도 눈이 내리는 날이 늘고 있고, 2003년 2월에는 40년만의 폭설이 내렸다고 한다.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눈, 비가 많이 온다고 하였다.

- 투파를 보기위해 찾은 네브세히르의 파샤바 계곡은 황무지 구릉에 그림책에나 등장할 만큼 엉뚱하게 생긴 굴뚝모양의 바위 기둥이 가득했다. 원뿔형의 머리를 원기둥이 받치는 형상인데 높이가 20 ~30m는 족히 돼 보였다. 뽕쭉한 바위 꼭대기에 투파 세 개가 선 곳을 지나다 희한한 것을 보았다 바위를 파내어 만든 작은 방이었다. 사다리로 올라가 보니 거주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요즈음 어떤 곳은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한다.
- 투파의 재질은 화산재가 오랜 세월 응축되어 생성된 부드러운 응회암이다. 연약질이다 보니 비바람 등으로 침식돼 이렇게 빗어진 것이다. 원뿔형의 머리는 겉에 박힌 호박돌 덕분에 침식이 중단된 결과이다.



<바위를 파내어 만든 작은 방 >

- 파샤바 계곡을 나서 이번에는 괴레메마을의 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은 투파의 바위벽을 파내어 지은 암굴교회가 언덕과 계곡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암굴 안에 들어서니 프레스코(회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 넣어 굳힌 벽화) 성화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곳의 벽화의 붉은색은 비둘기피로 그린 것이라 한다. 이곳의 주인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며, 그들의 신앙적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고 순수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 용암분출로 만들어진 후 풍화작용과 자연 침식의 영향으로 응회암 바위가 마치 조각품처럼 형형색색 군상을 이루고 있는 괴뢰메박물관 앞에는 칼로 썰어먹을 정도의 찰기를 가진 아이스크림 돈돌마라는 양젖으로 만든 터키고유의 토속식품이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누구에게나 인기 있다는 돈돌마를 들고 갑파도키아 군상위에 올랐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회암 바위 속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속에서 당시 토속인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터키인의 지혜가 돋보였다. 토박이 터키인의 유창한 우리말 “빨리 빨리”는 그동안 이곳에도 수많은 한국관광객이 다녀갔음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았지만 우리 몸에 밴 “빨리 빨리”가 느긋한 그들에겐 어떻게 보여 질지 매우 궁금했다.
- 괴뢰메 박물관을 떠나 꼬야로 가는 길에는 네브세히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물으니 우리나라 시의회의 개념과는 달리 시의회는 시장이 의장이 되며 사실상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우리와는 개념이 다른 기관통합형과 분리형의 장점을 지향한 기관 혼합형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각기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관 분리형이나 통합형 또는 두 가지의 장점을 지향하는 혼합형이나 보다는 그 지방이 얼마만큼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느냐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있다고 보인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지하도시로 길을 재촉 하였다.



< 네브세히르시 의회 방문 >



< 괴레메의 지하도시 >

- 피레메의 지하도시는 암굴교회나 버섯모양 투파와 달리 지하에 조성된 대규모의 거주공간인데 그 유래는 기원전 4000년 전(히타이드왕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발굴 유래는 농장에서 닭이 한 마리씩 매일 없어져 주인이 관찰하니 지하도시 공기통으로 떨어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지하도시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중 데린구유라는 마을에 들렀다. 출입구는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낮다. 그러나 지하로 내려가니 높이 3m에 수십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도 있었다. 한마디로 개미굴을 연상시켰다. 좌우상하로 파 들어간 미로로 연결된 이 지하 도시는 무려 8개 층이나 된다고 한다. 얼마나 미로이면 영국에서 지하도시로 관광 온 어린이가 길을 잃어 아직도 못나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는데 기독교 박해시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며 환기구까지 갖춰 최장 6개월까지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큰 곳은 2만명이 살수 있는 규모이며 옆 지하도시와는 고속도로처럼 연결하여 왕래를 하였다고 한다.
- 갑파도키아에서 코냐로 가는 국도 휴게소에 들렀을 때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기름값이 엄청 비싼 데 놀랐으며 그 이유가 정부의 유류 소비절약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석유를 보유하면서도 채굴하지 않고 머지않아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 채굴하겠다는 정부의지가 어찌면 우리보다 20년 이상 뒤진 관공서 행정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보다 현명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하였다.
- 깨끗하게 만들어진 휴게소 안에 관광객을 유혹할만한 쇼핑시설과는 별도로 돈을 받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우리도 한때는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받은 때가 있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떠오른다. 가는 곳마다 종교적인 유산이 많은 까닭에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해마다 터키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을 넘는 관광대국의 기본정책도 주민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를 뿌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생선을 잘 잡지 않으므로 고깃배를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비늘이 없

는 생선, 가재, 게, 문어 등을 먹지 않으므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회교 음식문화의 특징을 들으며 꼬냐에서 안탈리아 휴양지로 출발하였다.

3) 지중해의 휴양도시 안탈리아

- 안탈리아는 터키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한 곳이며, 이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카라이안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히타이트족은 이 곳을 기원전 1900년부터 1200년까지 다스렸다고 하며, 팜필리아의 도시국가들과 리시아, 그리고 실리아는 프리지아인들이 올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했다. 그 후에 리디아 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기원전 6세기에는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다 전한다.
- 지중해의 휴양도시 안탈리아를 거쳐 파무칼레에 들렀을 때 TV를 통해 간혹 보아 오던 석회온천의 장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 전체가 하얗게 석회로 만들어져 멀리서 볼 때는 마치 흰 눈이 덮여 있는 듯한 모습 그대로였다. 석회암 지형과 온천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절경을 이룬 지역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그동안 무리한 온천개발로 물의 양이 줄어서 이제는 단지 보존을 위한 일부분 공개로 아쉽지만 발만 담그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 석회온천과 석양 >



< 고대도시 셀주스 도서관 >

- 발길을 돌려 로마의 고대도시 에페소에 도착을 하였다. 고대의 역사 속에서 에페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이교도 시대였을 때는 아테네 다음의 도시였고, 그리스도 시대였을 때는 예루살렘 다음의 도시였다고 한다.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세워졌다는 에페소는 처음에 항구도시였으며 그동안 크로이소스의 지배에서 페르시아에 정복되었고 다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지배되어 온 역사 깊은 고대도시라고 하였다.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크로이소스에 의해 재건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아름다움에 빠져 이 곳을 정복했다고 하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의 당시 건물의 웅장함과 정교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형극장, 경기장과 체육관 등의 유적은 알렉산더대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세월의 변화와 함께 4세기경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성서 속에 요한이 계시록과 복음을 쓴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에페소는 역사의 흔적을 지닌 도시답게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런대로 과거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지진과 황폐화로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원형 경기장 >



< 켈리블루 시청내 >

- 이동하는 동안 뜨거운 햇빛이 머리위에서 이글거리지만 이상하게도 그늘에만 오면 시원하였다. 대기온도는 30도를 넘는데도 땀 하나 나질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습도가 낮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때문이라고 했다. 뜨겁게 달궈진 에페소를 떠나 셀추시로 가면서 문득

사람은 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철학을 통하여 지성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이드의 설명대로 오늘날 서양문명의 양대 산맥을 헬레니즘(그리스풍)과 히브리즘(유대교)이라고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은 현대 인간중심의 철학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곳에서 과거 번성했던 그리스 로마시대의 유적을 보면서 찾게 되었다.

- 여름휴가의 시작이라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가운데 혼자 배낭여행을 왔다는 한국 여학생을 만났다. 모두들 여학생의 용기에 칭찬을 하면서 도전과 모험 속에서 자기계발에 부지런한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이 곧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예정대로 버스를 타고 셀축시 의회를 방문했다.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는 고고학자 출신의 공무원 뉴스터의 해박한 지식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각 지방마다 우수한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일은 트로이를 거쳐 이스탄불로 간다. 이스탄불은 터키를 대표하는 도시로 지금보다 훨씬 기대가 된다. 많은 시간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여서인지 모두가 피곤에 지친 모습이다.



< 셀축시의회 방문 >



<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 >

4) 다시 가고 싶은 이스탄불

-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나라 중 동양과 서양이 마주하는 유일한 나라 터키, 말마라 바다와 보스포루스 해협은 지중해와 흑해를 이어 주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그래서 터키의 지형을 두고 이야기할 때 엄지를 편 왼손바닥의 모양과 같다고 한다.
- 이스탄불은 경제·문화·교통·관광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의 옛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발달한 도시이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그리스교가 번성하기도 했으며, 11C 이후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기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왼손 엄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스탄불의 탄은 이슬람을 나타내는 아랍어라고 한다. 따라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스탄 등의 나라들은 모두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국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 성소피아 성당 >



< 내부전경 >

- 터키의 수도는 물론 앙카라이지만 이스탄불은 터키를 대표하는 경제 도시이다. 도시전체가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것을 볼 때 터키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는 증거이다. 도시전체가 보통 100년 이상 된 건물이 건재하고 터키인 모두가 오래 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풍습

에서 비교해 볼 때 30년이 못된 우리 건물의 수명을 두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모습과 새것은 좋은 것이라는 모순됨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시내 중심에 위치한 4천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그랜드바자르는 비잔틴시대부터 형성되어 500년 이상된 전통있는 재래시장이다. 하루 50만명 이상이 이 시장을 찾는다고 하니 지리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전통 재래시장 특유의 모습과 사철 비 맞지 않는 돔형의 지붕개량은 소비자를 위한 준비된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
- 가득한 정원이라는 뜻을 지닌 돌마바체 궁전은 오스만터키의 마지막 왕조가 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곳으로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 본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궁전건축에 금만해도 14톤이 소요되었고, 방이 285개라고 하니 과히 그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방 마다 금, 은, 크리스탈로 장식하여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정말 망국으로 치닫는 부귀영화를 돌마바체 궁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 돌마바체 궁전 >



< 내부전경 >

- 또한 톱카프궁전의 보석 박물관을 통해 본 86캐럿 다이아몬드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이고 황금의자와 단검 등 정말 귀한 보석들을 보면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권위를 엿볼 수 있었다.

- 지하 물저장고 에레바탄 사례이에 들러 그리스신전과 에페소 신전에서 옮겨왔다는 336개의 신전기둥들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볼 때와 특히 저장고 제일 끝부분의 기둥밑에 거꾸로 놓여진 그리스신화의 메두사상은 인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증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전의 파괴와 신상을 바닥끝에 거꾸로 놓을 수 있는 인간의 행동에서 종교의 믿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 톱카프궁전 >



< 지하 물 저장고 >

- 저녁 식사 후 제일 변화하다는 탁심거리를 찾았을 때는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골목골목 사이의 탁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약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이야기 소리가 질리듯이 들려오는데서 서구사회의 대중문화를 여기서 몸소 체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종교적인 이유로 놀거리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맥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정담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오늘 탁심거리를 마지막으로 터키에서의 7박9일 여행은 이제 끝이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내일은 귀국해야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뭔가 허전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여행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비교되는 모습에

서 인 것 같다.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부강한 나라는 자원, 돈,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데서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식으로 무장한 부지런한 국민성이 그들보다 앞선다는 자신에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과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 트로이 목마 >

이스탄불

인류 문명의 요람인 이스탄불은 다양함과 꿈의 도시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유일한 도시 이스탄불에는 인류가 문명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온갖 희망과 고뇌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리엔트, 그리스, 로마, 비잔틴 그리고 이슬람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인류의 역사가 이스탄불이란 좁은 공간에서 한 점으로 만났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스탄불은 ‘인류 문명의 살아 있는 옥외 박물관’이라고 불렀다. 유네스코가 역사도시 이스탄불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 이스탄불 시청 >

- 오랜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스탄불에서는 아름다운 자태의 모스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7세기에 지어진 예니모스크 또한 그중 하나다. 터키에서는 아랍어인 모스크라는 단어 대신 ‘자미’라는 터키식 이름을 사용한다.
-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 여행지를 추천하여 달라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스탄불을 꼭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한 도시에서 인류의 5000년 결실과 모두 만날 수 있는 매력 때문이다. 그뿐이라,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가 자연스레 만나 이룬 지금의 이스탄불은 공존과 협력을 가르쳐 준 인류의 큰 스승이다. 자기 것만 내세우고, 자기 가치만 선이라고 믿는 불행한 광신의 시대에 터키의 이스탄불은 문명에 대한 겸손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보여 주는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스탄불에 오면 감동하리만치 푸근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이스탄불의 커다란 매력이다.
- 이스탄불은 참으로 볼 것이 많은 도시이다. 그리스정교의 총본산이었던 6세기의 비잔틴 건축물 성소피아 대성당에서 출발하면, 맞은편에는 1000년이란 시차를 두고 블루모스크가 6개의 첨탑과 장대한 돔을 뽐내며 서 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오른쪽 광장은 히포드롬이라 불리는 로마시대의 원형 경기장이다. 그리고 성소피아 뒤편 바닷가에는 고고학박물관과 500년간 유럽과 세계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왕궁 톱카프가 숨어 있다.
- 초대 왕궁이었던 이스탄불대학교 정문으로 나오면 베야지트광장에 벵룩시장이 서고, 그 옆의 고서점가에서는 운이 좋으면 신라시대 한반도를 묘사한 고지도 사본을 구해 볼 수도 있다. 로마시대 지하 저수궁전을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던 대시장 그랜드바자르가 뜨거운 흥정의 열기를 뿜어낸다. 푸른빛이 감도는 터키석도 이곳에서 살 수 있다. 이 엄청난 유산들이 모두 5분 거리의 시야에서 내가 한꺼번에 차지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들이다.



< 카페트 공장 견학 >



< 아차튀르크 초상화 >



< 이스탄불의 보도블럭과 우수관 관찰 >

- 이스탄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기원전 7세기 그리스 통치자 비자스는 오랜 기도 끝에 “눈 먼 땅에 새 도시를 건설하라”는 델피신전의 신탁을 받았다.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고심하던 비자스

는 보스포루스 해안 맞은편 언덕과 마주친 순간 무릎을 쳤다. 그곳은 보스포루스와 말마라해, 에게해 세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요새에다 세상의 절경을 숨기고 있었다. 그 누구도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했던 언덕에 비자스의 도시 비잔티움이 태어난 것이다.



< 보스포루스 해협 >



< 그랜드바자르 시장 >

- 그러나 지상의 낙원이었던 비잔티움의 운명이 순탄할 리 없었다. 로마와 비잔틴시대 100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로 당당한 이름을 날리다가, 1200년에는 십자군의 침략을 받고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초토화되었다. 거둬지던 혼란은 결국 1453년 5월 29일 오스만제국이 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인류는 이스탄불과 함께 중세를 마감하고 근세의 새 시대를 열었다.
- 이 모든 역사의 배경이 되었던 현장이 바로 보스포루스해협이다. 크루즈를 타고 1200만 인구의 대도시 한가운데로 두 대륙을 가르며 흐르는 보스포루스에서 보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오른팔로 아시아를, 왼팔로 유럽을 감아 올린 그 기분과 그 감격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잠시 아시아 쪽에 배를 정박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 귀에 익은 민요의 고장 위스크다르다. 신라에서 출발한 진귀한 교역품들을 실은 배가 바다 건너 콘스탄티노플로 향할 준비를

하던 동방의 끝인 셈이다.

- 이스탄불이 주는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은 그곳 사람들의 친절함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국 사랑이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일등국민으로 대접해 주고 형제로 반겨 주는 나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 주고 평가해 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나라가 터키다. 한국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집에 초대하여 갓 구운 양고기 케밥을 온갖 정성을 다해 접대한다고 한다.

누군가 역사와 자연, 사람과 음식, 볼 것과 살 것을 모두 갖춘 도시 이스탄불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보람을 느낀다고 했던가. 그래서 이스탄불을 다녀온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탄불을 그리는 열병을 앓는다고 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탄불을 찾아가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스탄불의 각종 현황>>

인구 : 1,200만명

면적 : 532km²

언어 : 터키어

시간 : 한국보다 7시간이 빠르다. 4월~9월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기온 : 18~23℃ / 65~72°F(6월의 평균)

화폐 : 예니터키리라(YTL, 1YTL = \750)



< 이스탄불 시청에서 >



< 모스크들은 기도를 올리는 신성한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임 >

버스 : 전철과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노선이 짧고 많지 않아서, 주요 교통수단은 버스다. 이스탄불의 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버스와 차원이 다르다. 시외버스는 보통 독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최고급 차종으로, 긴 여행 중에는 음료 및 간단한 간식을 제공해 장거리 이동에도 편리하다. 그러나 그만큼 요금이 만만치 않은 것이 단점. 일반 시내버스 요금 역시 비싼 편으로, 대부분의 회사원은 월급의 10분의 1을 교통비로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트램 : 이스탄불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는 트램이 있다. 지상에 깔린 선로를 따라 운행하는 트램은 깔끔하고 저렴하며 중앙역과 그랜드바자르, 블루모스크 등의 주요 관광지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트램 노선들을 잘 알아 두면 이스탄불을 둘러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각 정거장마다 매표소가 있으며 표는 타기 전에 미리 구입해야 한다.



< 블루모스크 내부 >



< 트램 >

배 :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로 지르는 이스탄불에서는 배가 주요한 시내 교통수단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버스 다음으로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은 직장인들을 가득 태운 배의 행렬로 분주하다. 아침 해, 또는 야경과 함께 배위에서 바닷바람을 맞는 것 또한 이스탄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경험 중 하나. 그러나 성수기가 아니고는 운항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이용하기 전에 배의 운항 여부와 운항 시간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랜드바자르 : 바자는 시장을 뜻한다. 그랜드바자르는 400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된 실내 시장으로,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대시장을 의미한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물품이 진열된 시장은 늘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부르는 게 값이라 같은 물건이라도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하니 흥정은 필수. 토요일은 일찍 문을 닫으며 일요일과 종교 관련 휴일에는 폐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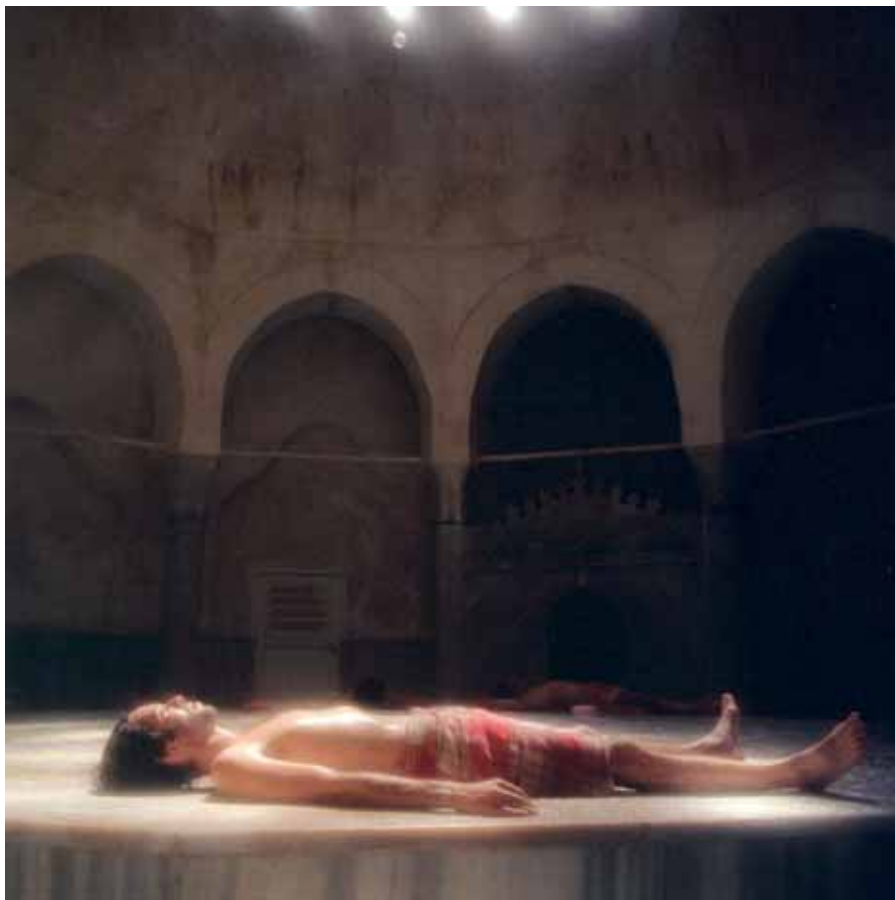
아야소피아박물관 : 성소피아 대성당은 현재 아야소피아박물관으로 불리고 있다.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박물관은 거대한 돔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로, 세계 7대 건축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스탄불이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던 6세기에 그리스도교의 대성당으로 지어졌으나, 15세기 중엽 터키의 지배 하에 놓이면서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로 변했다. 모스크가 되면서 성당을 둘러싸는 첨탑이 세워지고, 성당 안은 코란의 금문자와 문양들로 채워졌다. 현재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화와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 등이 공존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블루모스크 : 오스만제국의 술탄 아흐메드가 건설한 6개의 첨탑을 가진 블루모스크는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다. 17세기 초에 지어진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이며 실내의 벽과 기둥을 장식한 신비한 타일로 인해 블루모스크라고 불린다. 200개가 넘는 창을 통해 모스크 내부를 비추는 햇살이 스테인드글라스와 어우러져 뿜어내는 빛은 가히 환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빛이 좋은 날 방문할 것을 권한다. 성소피아 대성당과 마주한 모스크는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독특한 형상의 이슬람교 사원을 탄생시켰다.

돌마바흐체 궁전 : 바다를 메워 만든 돌마바흐체 궁전은 보스포러스 해협의 유럽측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외관은 여느 궁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베르사이유 궁전을 본따 만든 초호화 궁전이다. 일단 내부에 들어서는 관람객들은 관람 전 비닐 신발을 신어야 하고 바닥의 붉은 카펫 위로만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가이드 없이 관람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총 285개의 방, 46개의 연회장과 갤러리들은 각기 다르게 꾸며져 있다. 무려 4톤이 넘는 중앙 홀의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크리스털 촛대, 손으로 직접 짠 대형 카펫,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등으로 가득한 궁전은 그야말로 거대한 보물 창고다.

첼메를르 타쉬 하맘 : 흔히 터키탕으로 알려진 전통 목욕탕은 터키어로

하맘(Hamam)인데, 그 중에서 그랜드바자르 건축의 챔베를르 타쉬 하맘이 유명하다. 터키탕은 커다란 대리석 온돌을 덮혀서 그 주위에 타월을 두르고 모여 앉아 열기로 땀을 내는 일종의 건식 사우나다. 대리석 주변에는 더운 물을 받아쓸 수 있도록 작은 대리석 온수통들이 마련되어 있다. 넓은 대리석 열판 위에서 온갖 주제로 담소를 나누는 터키탕은 남녀 모두에게 친교의 장소이자, 정보 교류와 여론 형성의 산실이다.



< 하맘은 뜨겁게 달구어진 대리석 바닥에 누어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하는 일종의 공중 목욕탕 >

이스티크랄 거리 : 젊은이들의 쇼핑과 문화 거리로 신도시 중심지인 탁심 광장에 이어져 있다. 은행과 부티크는 물론 카페와 레스토랑, 교회와 공연장들이 집결되어 있다. 첨단 문화와 터키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어, ‘이스탄불의 오늘과 미래’가 궁금하다면 찾아볼 만하다.

보스포루스 크루즈 :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이 두 대륙 사이를 오가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크루즈만한 것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안을 따라 지그재그로 달리는 정기 항로선을 이어 하는 것으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이루어 내는 묘한 대비가 이스탄불만의 색다른 운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에미뇌뉘에서 승선하여, 해협의 아시아측과 유럽측에 번갈아 정박하는 왕복 크루즈 여행은 보통 6시간이 소요된다.

터키인들의 남다른 축구 사랑 : 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축구 전문가다. 프로축구의 역사는 100년에 이르며, 모두 3개 리그에 소속팀만도 200개가 넘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대뜸 좋아하는 축구팀을 묻곤 하니, 터키 여행 전에 축구에 관한 정보를 챙긴다면 언제든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Ⅲ. 연수결과

-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경제 제일주의, 리저널리즘(regionalism)과 글로벌리즘(globalism), 분권적 정치체제,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제한된 지역에서 외부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해외 연수국으로 인기가 많은 터키의 정치·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의 분야를 연수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연수에 임 하였다.
- 그러나 한정된 짧은 일정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터키의 지방자치와, 관광정책, 도시·문화 등 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향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터키의 자연환경은 위치적으로 북위 35~42도에 위치해 우리나라와는 비슷한 점이 많으나, 아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 유럽대륙의 동남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흑해, 말마라해,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와 다다넬즈 해협에 의하여 트레이스 반도(유럽 부분)와 아나톨리아반도(아시아 부분)로 구분되어 발달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 터키와 우리나라와는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 그 당시 참전한 16개국의 고마운 기억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라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먼저 도움을 준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터키의 국기는 독립 당시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회교의 상징인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곳곳의 국기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 평소에 도 많은 곳에서 국기를 볼 수 있다는 터키국민들의 국기사랑에 국경 일에도 태극기를 외면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 되었다.

- 현지 여행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터키를 단체 여행하려면 터키인과 함께 여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터키의 관광 정책상 터키인 관광가이드를 동반하여 관광명소를 찾아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책상 자국민 고용창출 차원과 관광지의 유물들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 터키에서 관광 가이드는 최고의 직업이라 하며, 수입 역시도 최고라 볼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가이드의 자격은 수개의 외국어 어학능력과 터키의 역사 등이라 하며, 또한 학력도 대졸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대졸 학력은 전국민의 3%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수준의 국가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 깨끗하게 만들어진 휴게소 안에 관광객을 유혹할만한 쇼핑시설과는 별도로 돈을 받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공중 화장실 이용료로 돈을 받은 때가 있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떠오른다. 가는 곳마다 종교적인 유산이 많은 까닭에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마다 터키를 찾는 관광객이 500만을 넘는 관광대국의 기본정책도 주민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를 뿌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 셀чук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는 고고학자 출신의 공무원 뉴스터의 해박한 지식과 함께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각 지방마다 우수한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 가는 곳마다 연필을 세운 듯한 화려한 첨탑이 있는 회교사원들이 절대적인 회교국가임을 상징하였고 아직도 우리말로 황제를 뜻하는 술탄을 찾기 쉬운 이유가 오스만터키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희망이 배여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터키국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초대대통령, 그는 “터키인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며 오직 터키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말을 남긴 애국주의자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시피 터키를 위해 산 그를 아직도 관공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건물에서 사진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터키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국가답게 광활한 대지와 끝없는 들판의 농작물이 우리를 부럽게 만들었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는 하나같이 여자들이었고 간혹 농기계 운전하는 남자가 한두 사람 보이는 이유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힘든 일은 모두 여자 몫이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찻집에 앉아 물 담배와 OK마작이라는 놀이로 소일한다고 하니 남자들의 지상낙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어처구니가 없어 보는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하였다. 우리보다 훨씬 낮은 국민소득 약4000불이면서도 지하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제소득은 훨씬 높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유롭게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터키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터키의 지방자치제도는 우리와는 역사와 배경이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네브세히르 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우리나라의 시의회의 개념과는 달리 시장이 의장이 되며 사실상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우리와는 개념이 다른 기관통합형과 분리형의 장점을 지향한 기관혼합형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각기 지방마다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관 분리형이나 통합형 또는 두 가지의 장점을 지향하는 혼합형이나 보다는 그 지방이 얼마만큼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기름값이 엄청 비싼 데 놀랐으며 그

이유가 정부의 유류 소비절약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석유를 보유하면서도 채굴하지 않고 머지않아 석유자원이 고갈될 때 채굴하겠다는 정부의지가 어찌면 우리보다 20년 이상 뒤진 관공서 행정이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보다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 끝으로 바람직한 해외 연수를 위하여 여행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충언을 하면서 연수보고서를 마무리 지을까 한다. 배낭만 메고 간다고 배낭여행은 아니다. 하물며 요즈음 배낭여행은 배낭도 안 메고 간다. 그건 더더욱 배낭여행이 아니라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령보다는 여행을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공무원은 일반 여행자와 또 다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 경험에서 우리는 화두를 가지고 여행하기를 권한다. 그냥 보지 말고 내 마음속의 화두와 연관 지어 생각하며 보기를 권한다.
- 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공부하지 않고 덜커덕 가는 여행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여행안내책자, 인터넷, 여행사 등에서 관련된 여행기, 역사, 지리 등을 충분히 공부하기를 권하고 싶다. 지도도 미리 구해서 코스를 표시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유럽이나 터키의 경우에는 역사나 문화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수많은 성당과 미술관, 박물관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터키의 경우는 역사를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여행에서 일정이 너무 빠빠하면 좋은 여행이 되기 어렵다. 이번 여행은 터키 한곳만 7박 9일을 여행 하였다. 두 나라 이상을 열흘 남짓 이상으로 다니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여행 중 혼자 배낭 여행을 30일간 예정으로 왔다는 한국 여학생을 만났는데 모두들 여학생의 용기에 칭찬을 하면서 도전과 모험 속에서 자기계발에 부지런한 우리 젊은이들의 비전이 곧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였다.